



보도시점 (온라인) 2024. 10. 6.(일) 12:00
(지면) 2024. 10. 7.(월) 조간

인구감소지역 중소·벤처기업 투자 위해 200억 원 규모 '인구활력펀드' 조성

- 행안부·중기부, 지방소멸대응기금 45억 원, 모태펀드 95억 원 공동출자해 총 200억 원 규모 벤처펀드 조성
-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의 중소·벤처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펀드로 운용

- 행정안전부(장관 이상민)와 중소벤처기업부(장관 오영주)는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'인구활력펀드(이하 활력펀드)'를 조성한다고 10월 7일(월) 밝혔다.
 - 활력펀드는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45억 원, 중기부 모태펀드에서 95억 원을 각각 출자하며, 민간투자를 추가로 유치해 연내 총 200억 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.
- 이번에 조성되는 활력펀드는 인구 감소와 그에 따른 일자리 감소로 경제적 활력이 저하된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성장을 돕고, 지역 내 기업 유치를 촉진해 지역 경제를 재도약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.
- 활력펀드는 펀드 금액의 60% 이상*을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에 소재한 중소·벤처기업과 투자 후 2년 이내 본점을 인구감소지역 등으로 이전하거나 해당 지역에 지점, 연구소, 공장을 설립하는 기업에 투자할 계획이다.

* 정책펀드가 특정 목적에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금액, 벤처펀드는 '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' 소재 중소·벤처기업에 60% 이상 투자 필요

- 사업 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0월 7일(월)부터 한국벤처투자 누리집 (<https://www.kvic.or.kr>)에서 확인할 수 있다.
- 인구활력펀드에 참여하는 민간투자자들을 위한 출자 제안서는 10월 21일(월) 10시부터 10월 28일(월) 14시까지 벤처투자 종합정보시스템 (<https://install.kvic.or.kr>)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.
- 행안부와 중기부는 민간 투자자와 긴밀하게 협력해 펀드의 성과를 극대화 하고, 내년부터는 지역별 투자 현황과 수요를 분석해 펀드 규모를 점진 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.
-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"부처 간 협업으로 출범한 이번 펀드를 통해 혁신적인 중소·벤처기업이 인구감소지역 경제의 재도약을 이끌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"고 밝혔다.
-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"인구활력펀드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중소·벤처기업을 지원하게 될 것"이라며, "지역 기업에 대한 두텁고 다양한 지원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,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"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	책임자	과 장	허남석 (044-205-3501)
		담당자	사무관	김형균 (044-205-3412)
담당 부서	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	책임자	과 장	이권재 (044-204-7710)
		담당자	사무관	박병민 (044-204-7713)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